

전남 1684억 투입 134개 복지사업 추진

고령 친화도시 환경 조성... 전년비 22.1% 예산 늘어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중복지원 우려... 우선 순위 따져야

전남지역 노인(65세 이상) 수는 41만 5254명(4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187만3183명)의 22.2%에 이른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2014년)한 지 5년이 넘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올해 들어서 전년보다 22.1% 늘어난 예산을 들여 자재 복지 정책을 내놓은 이유다. '2019년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로 고령 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지정책 방향이다. 다만, 전면일괄적이거나 예산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은 선심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 22개 시군, 올해 134개 자재 복지사업 벌여-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22개 시군은 올해 1684억1700만원을 투입, 134개의 자재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전년도(1379억2800만원)에 견줘 무려 22.1%나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 아닌,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순수한 자재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선 시군의 고령정책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65세 이상 유권자들의 비중이 계속 커지는 만큼 이들 '수퍼 유권자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려는 의중도 엿보인다. <목욕에 빨래, 오래살면 장수축하금도-전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고독사 지킴이단'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9만8000가구(2017년)에 이르면서 전체 1인 가구의

42.3%나 되는 점 등을 반영한 정책이다. 전남도가 올해 100억원을 들여 처음 추진하는 공영장래지원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래의식을 치르기 버거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정책이다. 전남의 경우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73만3700가구·2017년)의 32.7%에 달하는데, 오는 2035년이 되면 절반(50.9%)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순천시는 환호 이혼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노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처음 추진한다. 영광군은 올해 처음 복지시설, 양로시설 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자서전 쓰기 돕고(순천), 남성 노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나주) 등 노인 '전용' 정책을 각 지자체마다 확대하는 모양새다. 나주, 순천, 광양 등에서 추진하는 '안심콜 서비스', '안부살피기'는 지역 노인들의 안부를 자치단체가 챙겨주는 서비스다. 85세 이상·100세인 장수 노인들에게는

생일날 생선 축하금을 지원(진도)하고 90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생선떡을 전달(구례)할 뿐 아니라 3세대가 2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 지원금을 주는 '효행장려' 지원사업(곡성)도 펼친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올해 목욕장 120개 운영에 24억원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35억원을 투입, 10개 목욕장을 더 짓기로 했다. <중복사업, 유사사업도 많아-일각에서는 전면 일괄적이고 중복 지원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군과 함께 지방비반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은 정부가 추진중인 '2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유사하다. 95가지 폐렴 원인균 중 23가지를 예방하는 '백신'과 13가지를 예방하는 '백신'의 차이. 이 때문에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예산 형편을 고려하면 우선 순위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문무일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수사권조정' 간부회의 주제... 입법 난항 예상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담긴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을 두고 검찰이 반대 입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됐다.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야 할지에 대해서는 문 총장의 구체적 의중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인지, 경찰 권력을 통제할

효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가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수사를 개시하는 국가기관에 수사 종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총장의 지론이다. 이는 사실상 '삭제' 의견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에서 관련 내용을 아예 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삭제'로 입장을 정할 경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검찰의 이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안에서 1차 수사종결권의 통제 장치로 규정한 이의제기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만약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다면 이의제기권 등에 비해 훨씬 강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몇 차례 더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을 확정된 뒤 국회 사법특위에 출석해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배우 유해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



배우 유해진(사진)이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광주시는 7일 친근한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해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데뷔한 유해진은 광주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를 비롯해 '말모이', '공조', '1987', '럭키'와 TV 프로그램 '스페인 하숙' 등에 출연했다. 시는 인간적이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해진이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열리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이미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유해진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디자인비엔날레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수영대회로 높아진 광주의 국제적 도시 위상에 걸맞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성공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제8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5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개최된다. 위촉식은 오는 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등지에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1회 위반 시 현행 10만원인 과태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천 황현 '매천야록' 등 6건 문화재 등록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매천 황현(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 등 관련 유산 6건이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매천 황현 매천야록', '매천 황현 오하기문', '매천 황현 절명시첩', '매천 황현 시문'(7책), '매천 황현 유묵·자료첩'(11책), '매천 황현 교자·시권(2집)·백패통'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한말삼재(韓末三才) 호남삼재(湖南三傑) 이름을 날린 황현은 자신이 직접 지은 시문과 1888년 생원시에서 장원급제한 교자(敎旨) 등을 남겼다.

광양 출신인 매천은 젊은 시절 상경해 강위·이건창·김택영과 교류했으며 구례로 돌아간 뒤에는 책을 읽고 저술 활동을 했다. 먼저 '매천야록'(747호)은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1864년부터 일제가 국권을 빼앗은 1910년까지 역사를 정리한 글로, 한국 근대사 연구에 중대한 가치를 지닌다. '오하기문'(제747호)은 매천야록 초고로 추정된다.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역사적 사실과 의병항쟁을 비롯한 항일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절명시첩'(748호)은 매천의 '절명시' 4수가 담긴 첩으로 시간과 상량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천 황현 시문'(제749-1호)은 황현이 1880년대에서 1910년까지 지은 시와 글을 모은 문집이다. 등록문화재 제 749-2호 '매천 황현 유묵·자료첩'은 황현의 저술뿐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과 주고받은 서간, 중요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아 놓은 책이다. 마지막으로 '매천 황현 교자·시권·백패통'(제749-3호)은 황현이 1888년 생원시에서 급제한 교자, 1888년 생원시 2소에 응시해 1등 제2인으로 급제한 시권, 이를 보관한 백패통으로 구성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체감사 '적극행정 면책' 완화법안 국무회의 통과

자체감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모두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4가지 요건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

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4가지 요건 중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 요건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되도록 안내해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국을 돌며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을 살피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기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혁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연합뉴스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 환 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지은면 한운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반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원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km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디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지하 205㎡ 은행8천 교환가능 1억8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밀 4차선접 4630㎡ 대형저수지 인근 노인병원·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함평 연산면 바다 접 땅 1280㎡ 건평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홍성로 47㎡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25억
- 백운동로터리와 대성로터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동구 충장로 5가 최고상업지 내대지 1707㎡ 건설적합 84억
- 광산구 송학동 땅 43278㎡ 사찰있음. 남골당·복지시설 적합 15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펜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가역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다스코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 모집
 - 태양광발전소 1기 100kW 용량에 1000㎡ 이상 부
 - 태양광발전소 2기 100kW 용량에 1000㎡ 이상 부
 - 태양광발전소 3기 100kW 용량에 1000㎡ 이상 부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투자 상담이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명을 부여 받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명을 부여 받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명을 부여 받으신 분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영업 영업사원
 - 태양광 영업 영업사원
 - 태양광 영업 영업사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전략기획	전략기획	회
	인사	인사	
스	신사업개발	영업	회
	신사업개발	R&D	
세	수정개발	영업	니
	수정개발	R&D	
라	수정개발	영업	니
	수정개발	R&D	

* 업무선: 영업 06370-2632, mcs@daesco.com, 인사: ~ 채용까지